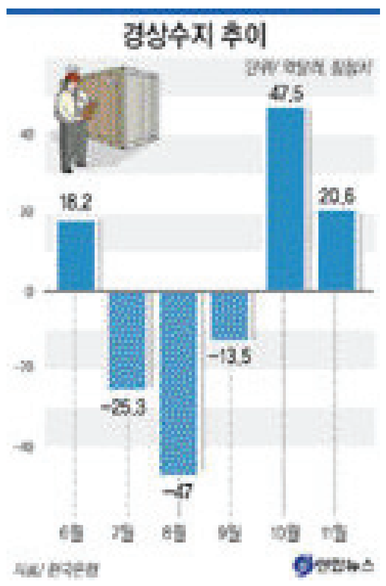
경상수지 두달 연속 흑자

韓銀 발표 … 11월 중 20억달러 달해

수출 급격 위축 흑자 기조 유지 불안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1월중 국제수지 동향'은 외환시장 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이 빠르게 줄고 있어 이런 흑자 기조가 지속된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경상수지 2개월 연속 흑자 = 11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10억 달러 이상'보다 많은 20억5천660만 달러에 이르렀다.

달러 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에는 청신호다.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결정적인 이유중의 하나는 경상수지 불안이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지가 흑자기조를 유지했고 ▲서비스수지가 비교적 균형수준을 나타냈고 ▲소득수지가 흑자기조를 이어간데 따른 것이다.

상품수지는 9억9천460만 달러의 흑자로 전월의 26억2천570만 달러에 비해 줄었지만 적지않은 규모다. 올들어 상품수지는 적자로 돌아서는 등 불안한 모습이었다.

상품수지는 올해 1월에 10억9천52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충격을 줬고 2월에는 5억9천910만 달러, 8월에는 28억340만 달러, 9월에는 8억8천970만 달러의 적자를 각각 나타냈다.

10월과 11월의 상품수지 흑자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입액이 줄어든데 따른 영향이 크다.

서비스수지는 1억3천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 전월의 5천480만 달러의 흑자에 비해 악화됐으나 거의 균형수준으로 평가됐다. 서비스수지는 6월 -21억2천630만 달러, 7월 -24억5천600만 달러, 8월 -12억3천570만 달러 등으로 큰 폭의 적자행진을 이어갔었다.

서비스수지 흑자에는 높은 수준의 원. 달러 환율로 해외 여행이 줄어든 것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 흑자기조, 반길수만은 없다 = 앞으로 경상수지 기조가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수출이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1월 수출은 290억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9.0%나 줄었다. 특히 가전제품은 46.9%, 반도체는 44.0%, 정보통신기기는 31.9%의 감소율을 각각 나타냈다.

화공품의 수출은 29.3%가 줄어 전월의 1.0% 증가에 비해 크게 악화됐고 철강제품은 25.5% 증가에서 8.5% 감소로, 기계류.정밀기기는 10.3% 증가에서 19.3% 감소로 각각 돌아섰다.

경공업 제품도 14.7%가 줄어 전월의 8.3% 증가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한은이 예상한대로 96억 달러에 이를지는 확실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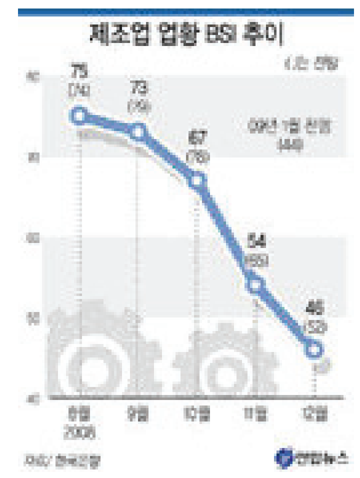
◇ 전문가들 "경상수지 불안한 흑자" = 경제 전문가들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수 있으나 '불안한 흑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제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축소형 흑자'라는 점이다. 이는 경제 불황의 골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의미이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에 이른다. /연합뉴스

제조업 체감경기 환란 수준

韓銀 1,392개 제조업 조사

12월 BSI 46 … 전달比 8P ↓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현재의 경기시황과 내년 1분기 전망이 급락하며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최근 1천39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12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46으로 전월의 54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998년 1분기(35) 이후로 가장 낮고 2분기(46)와는 같은 수준이다.

업황 BSI는 지수 100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여건을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으면 100에 못 미치게 된다.

대기업의 12월 업황 BSI는 42로 전월의 55보다 13포인트 급락하면서 기존 최저치였던 1998년 1분기(40) 수준에 근접했다. 중소기업의 업황 BSI는 11월 53에서 12월 47로 6포인트 떨어져 1998년 3분기(46) 이후로 가장 낮았다.

수출기업의 지수는 12월 40으로 이 분야의 통계가 작성된 1998년 1분기 이래로 최저 수준이고, 내수기업 지수도 1998년 3분기(43) 이후로 가장 낮은 50에 그쳤다.

무엇보다 향후 전망은 외환위기 당시의 수준을 넘어 통계 작성 이래로 최저 수준이다.

제조업의 내년 1월 업황전망 BSI는 4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1년 3분기(112) 이래로 최저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월 전망지수는 각각 43과 45로 기업규모별로 분류된 1994년 1분기 이래로 가장 낮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전망 BSI는 40과 47에 각각 그쳤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4분기 제조업 시황지수는 전분기 87에서 59로 급전 직하했다. /연합뉴스

"금융사 임직원 부실 대출 면책"

내년 말까지 한시적 … 기업·가계 자금 지원 유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과 가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면책제도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회사가 2009년 경제운용방향 등 정부의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 개인비리가 없으면 면책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도 전반적인 경제여건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지만 면책요건이 추상적이고 매우 엄격해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능동적으로 기업과 가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감독규정상 면책사유를 적극 해석키로 했다.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따른 자금지원과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공동지원을 결정한 경우 면책대상이 된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 자체 기준을 정해 지원한 자금도 면책대상에 포함된다.

가계대출도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만기연장 및 금리조정을 해줬다가 차후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을 경우 면책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검사단계에서 면책대상 및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반장 재량에 따라 과감하게 불문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08년 증시가 폐장된 30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직원이 올해 5월부터 폐장일까지의 엇갈린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 지수 그래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굿바이! 2008 증시 … 코스피 상승 마감

원·달러 환율 3.50원 내린 1,259.50원

국내 증시 폐장일인 3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88포인트(0.62%) 오른 1,124.47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는 7.01포인트(0.63%) 오른 1,124.60으로 출발해 기관과 이틀째 이어진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올해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연말 윈도드레싱(수익률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기관은 각각 1천880억원과 2천585억원의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개인은 무려 4천861억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제한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2.87포인트(0.87%) 오른 332.05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미국 뉴욕증시의 하락에도 1.23포인트(0.37%) 오른 330.41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며 5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째 하락하면서 두 달 만에 1,250원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연말 기준으로는 3년 만에 네 자리로 뛰어 올랐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3.50원 하락한 1,259.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두 달 만에 1,250원대로 하락했지만 작년 말 936.10원에 비해서는 323.40원 급등했다.

1년간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절하율은 25.7%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50.2%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원·엔 환율은 100엔당 1,396.34원으로 마감하면서 작년 말보다 568.01원 급등했다. 1년간 엔화 대비 원화의 절하율은 40.7%를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권유 못한다

안정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위험도 높은 금융상품의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게 된다.

자산운용협회와 증권업협회는 30일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투자회사에 대고객 위험고지,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증권회사와 은행을 포함한 판매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안을 확정, 자통법이 시행되는 2월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준칙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경험, 투자예정기간, 연령, 재산, 소득상황, 투자상품 지식수준, 손실감내도, 성향 등 정보를 파악한 뒤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위험선호도를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

단계별로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제한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익률 첫 마이너스

주가 급락 … 1조7천억 평가 손실

국민연금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하반기 주가 급락으로 올해 국민연금기금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기금이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는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다.

12월 26일 현재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약 -0.75%이며 잠정평가손실은 약 1조7천58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해 국내주식투자 부문이 대규모 손실을 본 적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채권투자 비중이 주식의 4배 이상으로 높아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해 전체 기금은 항상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코스피 지수가 한때 800선을 위협하다 결국 지난해 연말 대비 40.5% 하락하는 등 시장불안이 지속돼 주식시장에서 입은 큰 손실을 채권 수익으로도 만회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연합뉴스

1월부터 분유값 5% 내린다

유아용 부가세 면제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줌에 따라 분유업체들이 가격을 소폭 내릴 전망이다.

30일 분유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파스퇴르유업 등 분유업체들은 내년 초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는 생후 6개월 이후 유아용 분유 제품 가격을 5% 안팎으로 소폭 인하하기로 했다.

매일유업은 현재 자사의 대표브랜드인 앱솔루트 시리즈 분유제품 가격을 5~8% 가량 내리기로 결정하고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 통보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1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앱솔루트 명작'(800g)의 경우 3단계(생후 6-9개월)와 4단계(생후 9개월-돌 이후) 가격이 현재 2만2천300원에서 오는 1월초부터 800~1천300원 가량 내리고, '앱솔루트 궁'은 현재 3만2천300원에서 1천600~2천원 가량 인하한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만큼 고객들에게 최대한 환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가격을 내린다는 방침은 정해졌지만, 가격 인하 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스퇴르유업 역시 분유 3단계 제품 가격을 5% 가량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들은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게 돼 탈세행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입장에서도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보관·신고하는데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시작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 간 거래시(B2B)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부가통신망(VAN)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유한회사 마이케어	웹디자인 및 경리직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3	062-265-2609
대한생명	[광주]생명보험 FC 신입 및 경력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4	011-641-9230
씨큐어넷	신한카드 광주고객센터 정규직 인바운드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1/05	011-9605-9696
아람기업	[개발팀/공사팀]2009년 부서별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5	062-236-0781
상명건설㈜	조경기술자 경력직(5년)/건축기술자 임원급(15년)	초대졸/경력5년	5000~6000	01/05	062-528-9711
㈜대창 E&T	에너지 사업부 정규직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6	062-383-6831
현대카드	2009년 현대카드 신용설계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6	010-5160-8469
㈜아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서부고객센터 상담사(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1/06	062-601-7213
경인조경설계사무소	조경설계 정규직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1/06	062-372-1348
한국인포데이타㈜ 전남본부	㈜코이드 전남본부 KT고객센터(100)일반상담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8	062-230-1603
㈜후성종합개발	부동산개발/분양사업/컨설팅/시행사	고졸/경력무관	2800~3000	01/09	062-371-8831
㈜엠푸드시스템	알래스카광주월드컵점(주) 캐셔.식음료사원.조리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10	062-653-2311
이튼치과의원	치위생사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1/10	062-651-287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메리츠화재 "C&중공업 손실 공동 책임"

메리츠화재는 30일 C&중공업에는 선수금 환급보증서(RG) 발급만 할 것이지만 자금 지원을 하는 은행들이 향후 손실을 입게 될 경우 공동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해줬다가 향후 C&중공업이 회생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순채권비율로 재계산해서 책임을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순채권비율이란 C&중공업의 기업개선 작업(워크아웃)이 중단됐을 때 부담해야하는 순손실액에 따라 산출하는 것으로 RG는 재보험에 가입해둔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채권은 담보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따지게 된다. /연합뉴스